

## 한홍수(HAN Hongsu)

1959년 전남 해남 출생 프랑스와 한국을 오가며 활동 중



한홍수는 2 년 반 동안(1996-98) 뒤셀도르프 쿤스트 아카데미에서 독일 신표현주의의 거장 A. R. 펭크(A. R. Penck)의 지도를 받았다. 파리에서 뒤셀도르프까지 매번 12시간을 왕복하면서, 미술의 자유로운 정신과 깊은 내면을 분출하는 정신을 배웠다. 현재는 프랑스 파리를 거점으로 유럽, 한국, 미국 (뉴욕, 워싱턴 D.C.) 등을 오가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천사들이 지나가는 화폭'이라는 평을 받는 '결'과 '수평선'을 화폭에 펼친다.

작가는 캔버스 위에 여러 겹의 투명한 레이어를 겹치는데, 두께가 거의 느껴지지 않기에 층을 쌓는 것이 아니라 결을 이룬다. 때로는 형태들 사이로, 때로는 겹쳐질수록 투명해지는 레이어의 투명성 사이를 비집으며 결이 흐른다. 결은 공간적으로는 켜를 지으며 풍경, 인체, 사물의 무늬를 만들고, 시간적으로는 미처 의식하지 못한 시간의 흐름을 재현한다.

그래서인지 작가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바로 재료이다. 유화라고 하면 두터운 마티에르를 연상하는데, 부드러운 붓으로 수십 번의 붓질을 하며 만들어진 그의 화면은 전혀 유화처럼 보이지 않는 맑고 투명하고 깨끗한 화면이며, 또한 흰색을 쓰지 않아 탁한 기운이 없다.

한홍수는 한 때 자신이 그림의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관람자의 입장을 생각한다. 그림을 보면서 그 사람도 그림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다. 또렷한 이미지 대신 흐린 이미지를 보며 무언가 느낌을 찾아보려 애쓰고 자신의 상상을 더해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내고 있다.





HAN Hongsu

Gyeol(결8) - Textures of Time
2020
Oil on canvas
60 x 73 cm





HAN Hongsu Horizon - 수평선 2020 Oil on canvas 60 x 73 cm





HAN Hongsu Horizon - 수평선 2018 Oil on canvas 38 x 46 cm





HAN Hongsu Horizon - 수평선 2018 Oil on canvas 38 x 46 cm





HAN Hongsu Horizon - 수평선 2018 Oil on canvas 33 x 41 cm